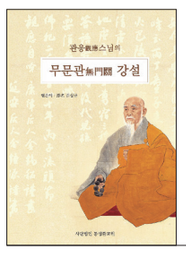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2~11/2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푸른수행 파란행복	종원	맑은소리맑은나라	6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2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루퍼트 스파이라	퍼블리온	7	어상: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3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8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초기불전003)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개정판)	에크하르트톨레	양문	9	정선앙굿따라니까야(정선니까야시리즈4)	이중표 역해	불광출판사
5	부모은중경(큰글씨한글경전)목련경/우란분경/삼세인과경	경전연구모임 편	불교시대사	10	맛지마니까야(2) 중간길이로설하신경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책세상

잊힐 뻔한 선지식 법문, 유발상좌가 다시 알리다



관응 스님의 무문관 강설
엮은이 김성규
사단법인 통섭불교원
2만5000원

관응 스님 유발상좌 김성규 원장
스님 남긴 무문관 법문들 묶어내
"선지식 법문, 남길 수 있어 다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뜰 앞의 잣나무."

조주 스님(778~897)에게 어느 한 스님이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하고 물으니 돌아온 답이다.

누구나 한번은 들어봤을 선문답이지만 명쾌한 답을 듣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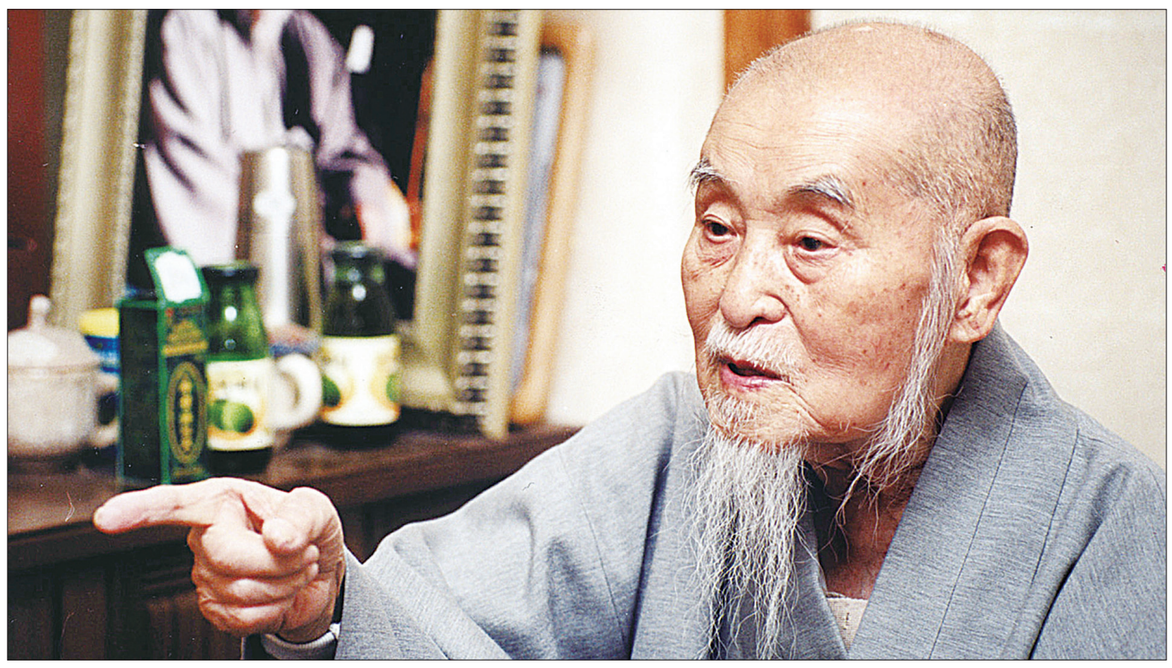
1991년 문경 김용사에서 열린 무문관 야단법석 현장에서 지안 관응 대종사(1910~2004)는 열흘 간 걸친 법문에서 명료하게 선(禪)의 공안을 펼쳐 설명했다. 시간과 함께 사라졌을 법문이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책으로 나왔다.

김성규 (사)통섭불교원장이 책 〈관응 스님의 무문관 강설〉을 새롭게 엮었다. 〈관응 스님의 무문관 강설〉은 김성규 원장이 소장하고 있던 법문 테이프를 3년 간 풀어 정리한 책이다.

김 원장은 1988년 법륜불자교수회를 창립하기 앞서 운문사에서 개최한 제1회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관응 스님을 만났다. 관응 스님의 법문을 들은 후 김성규 원장은 유발상좌로 인연을 이어 더욱 정진했으며, 스님의 법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안타까워 책으로 엮게 되었다.

김 원장은 "주옥 같은 스님의 법문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다"며 "다행히 스님의 법문 테이프를 가지고 있어 몇 년 동안 녹취하고 교정 교열해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응 스님은 선을 이야기하면서 교학을 세우고, 교학을 이야기하면서 선지를 밝힌, 선교가 일심으로 회통하는 스님이셨다"고 회고했다.

관응 스님은 천축사 무문관에서 6년간 수행을 마치고 평생 선 수행을 한 대선사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웠고 일본 교토 용곡대학교에서 불교를 공부한 '신선지식(新善知識)'으로 불렸다. 1956년에는 직지사 조실로 추대되었으며 불교정화 이후 1959년 조계사 초대 주지 및 중앙포교사로 포교활동을 펼쳤다. 1984년에는 원산 스님 외 9명의 스님에게 전강을 내렸으며 1985년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지냈다.



1910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관응 스님은 1929년 상주 남장사에서 혜봉 스님을 계사로, 탄옹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일본 용곡(龍谷)대학에서 수학했으며 조계사와 용주사, 직지사 주지를 비롯해 동국학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명예원로이며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등을 지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특히 관응 스님의 천축사 무문관 6년 결사는 한국불교계 일대 사건이었다. 세수 75세에도 수행정진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전강제자 10명을 배출했다. 스님은 정화에도 힘써 초대 조계사 주지였으며 화성 용주사 정화를 이끌었다. 포교에도 발군의 역량을 발휘해 초대 중앙 포교사로 활발한 전법활동을 펼쳐 1987년 제1회 포교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원장은 "관응 스님의 불은을 되새기면서 스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것 중의 하나인 무문관 법문을 정리했다"며 "불교에 뜻을 세우고 견성하려고 수행정진하는 수행자에게 인연이 닿는다면 큰 행운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책〈관응 스님의 무문관 강설〉은 책〈무문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는 강설과 선(禪)의 공안(公案) 가운데 유명한 제1칙 조주무자(趙州無字)로 시작돼 마지막 제48칙 건봉일로(乾峰一路)로 마무리된다.

책을 엮은 김성규 원장은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로 33년간 재직했으며 현재 명예교수이다. 승가 대학 및 일반 불교대학에서 불교에 대해 강의했으며 법륜교수불자회 회장과 '이뭣고' 백년결사운동의 지도법사를 역임했다. 1988년 법륜불자교수회를 창립했으며 영남대학교 의료원 불교신행회,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불교학생회를 창립했다. 현재 불교수행 공동체인 사단법인 통섭불교원 원장이다.

언어는 과연 완벽한 전달 수단일까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한상희 외
도서출판 운주사
2만3000원

인류가 다른 생명체들과 다른 차별화된 능력은 바로 '언어'의 사용이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며 문명과 문화를 형성했고, 의사소통을 해왔다. 우리에게 언어의 사용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중요한 일이다.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는 언어가 가지는 다양한 역할과 한계, 순기능과 역기능 등에 대해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현대 심리학에서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이렇듯 세계의 존재 및 그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언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언어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유용한 도구인지, 아니면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왜곡하는 불편한 도구인지를 밝혀보려는 것이다.

'편집자 서문(한자경 이화여대 교수)'에서는 인식과 의사소통의 수단인 언어가 과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가를 문제 삼으면서, 이에 대한 서양철학과 불교의 차이점을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연기와 유식사상에 의거해 언어의 분별적 이원성을 논하고, 이를 뛰어넘는 언어의 사용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초기불교: 언어, 깨달음으로 가는 길(한상희 경북대 교수)'에서는 초기불교에서 바른 언어의 사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유익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논한다. 불교에서는 실천을 통한 체득을 중시하는데, 그것이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대승불교: 은유로 나타나는 세계(김성철 금강대 교수)'는 유가행파, 특히 안혜의 은유론에서 정점을 이루는 인도 의미론의 발전과정을 다루는데, 그 과정에서 언어와 정신의 상호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대승불교에서는 언어적 사고가 업과 번뇌의 원인이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궁극적 실재에 대한 비언어적 인식을 획득해야 한다는 견해가 밑바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선불교: 불립문자와 불리문자의 이중주(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선불교에서 언어에 대한 관점은 언어를 부정한 불립문자를 표방하며 시작되었지만, 다시 요로설선(繞路說禪)을 통한 불리문자로 언어를 긍정하게 되었고, 대혜의 간화선에 이르러 불립문자로 재전환되었다고 밝힌다. 따라서 선불교의 역사에서 언어관은 '불립문자와 불리문자의 이중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서양철학: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로서의 인간(박찬국 서울대 교수)'에서는 '언어적 전환' 이후의 현대철학에 와서야 언어는 철학의 중심적인 주제가 되었고, 인간의 이성과 의식을 이해하는 주도적인 실마리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고대 그리스철학, 중세철학, 근대철학의 언어관을 개괄한 후, 현대철학의 헤르더, 훔볼트, 카시러, 하이데거와 가다머, 비트겐슈타인, 데리다, 포퍼 등의 언어관을 살펴본다.

'심리학: 말과 마음의 관계-언어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권석만 서울대 명예교수)'는 언어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도구이기도 하다고 한다. 따라서 언어의 순기능을 활용하되 그 역기능을 잘 이해하여 언어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가 매년 개최하는 학술연찬회에서 발표됐다. 올해 학술연찬회는 1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신중일 기자

불교와 꽁트의 만남!! 꽁트를 통해 불교의 세계로 들어간다

불교 지식 꽁트

화제의 신간



무아

혼이 나간 듯
TV를 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
나는 나의 존재를 잊었다.
망아(忘我)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화석이 되어 버린 아가씨
설마 죽은 것은 아니겠지?

무아(無我) — 나(我)란 없다는 뜻. 논리적 바탕은 오온무아(오온은 무아), 제법무아(모든 존재는 무아)이다. 또 무아는 아뜨만(ātman)을 부정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초기경전의 주석서들에서는 대부분'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문에서-

글 윤창화 | 204쪽 | 9,5000 원

저자 윤창화 1972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13회), 1999년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한국고전번역원)을 졸업했다. 1980년 불교 전문 출판사인 민족사를 만들어 42년째 불교책을 내고 있다. 논문으로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 「한암 선사의 서간문 고찰」, 「무자화두 십종병에 대한 고찰」 등이 있다 저서로는《왕초보, 선 박사 되다》,《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선불교》,《불교 사자성어》등이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불교 사자 성어

사자성어의 의미와 우리의 삶!
사자성어 60개를 두 달 만에 익힐 수 있다!



글 윤창화 | 224쪽 | 13,8000 원

몽중설몽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하다
회자정리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무명장야
-어리석음의 기나긴 밤
팔풍부동
-희로애락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자비무적
-자비 앞에는 원수가 없다
이고득락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다
실유불성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즉심시불
-그대 마음이 바로 부처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